

삼승할망 콤플렉스 연구

문무병(제주신화연구소장, 시인)

1. 할망콤플렉스의 시작



조천읍 와흘리 하로산당

삼승할망은 아이를 이 세상(이승 此生)에 태어나게 하는 산육신(産育神)이다.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 신생아(新生兒)를 ‘생불’이라 한다. ‘생불’의 ‘생(生)’은 ‘새로 태어난’ 뜻이고, ‘불’은 ‘불(=火)’, ‘불(=佛 새 생명)’이며, ‘별(=星)’의 뜻도 있다. 그러므로 ‘새로 태어난 아이’란 의미의 ‘생불’에는 ‘새로 태어난 불’ ‘새로 태어난 별’이란 뜻을 포함한 ‘새로 태어난 불(佛)’이란 의미를 지닌다. 태(胎) 안에 아기가 들어서게 하고, 새 생명을 낳게 하고, 태어난 아이를 길러주는 산육신(産育神), 삼승할망을 아기할망, 태할망, 생불할망, 불도할망이라 하는 뜻은 아이를 ‘생불’이라 부르는 의미와 여신(女神)을 ‘할망’이라 부르는 말들의 합성어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승할망을 불도할망이라고 부르는 데는 삼승할망의 영역, 신화에서 어떤 신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나라(국, 땅), 예를 들면, 꽃의 신, 이공신 할락

궁이가 꽃감관으로 있어 번성꽃, 환생꽃, 생명꽃, 웃음꽃, 멸망꽃 등 온갖 꽃을 키우고 관리하는 곳은 '이공 서천도산국'이라는 나라이며 '서천꽃밭'이라 부르는 나라인 것처럼, 신들의 영역, 신들의 세계, 신들의 나라를 말하는 "삼승할망이 아이를 열다섯 15세, 성년이 될 때까지 키워주는 땅"을 '불도땅'이라 하기 때문에, 삼승할망을 '불도할망'이라 고도 한다. 하늘나라의 모든 기능을 가진 신들은 신들이 나라(세계, 영역)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삼승할망을 아이를 키워주는 불도땅의 최고신이란 의미에서 불도할망이라 하는 것이다.

시인은 하느님의 신도나 충아가 아니다. 하지만 시인은 사람의 마음을 미의 경지로 이끌 수 있다. 그들은 영혼의 미적 창조자로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하고 승화시키며 미적 경지에까지 이르게 한다. 시인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을 풀어서 그 하나하나의 아름답고 풍부한 예술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 시 연구자와 애호가들의 공동된 염원일 것이다.

아이의 나라는 삼승할망이 다스리는 불도땅이기도 하지만 삼승할망이 지켜주는 어머니의 태와 태를 꿋고 세상에 나온 아이를 키우는 요람, 애기구덕이기도 하다. 삼승할망은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난 별, 어린 별, 하나하나를 키워내는 '애기구덕'을 지켜주는 신이기도 하다.

'삼승'은 현실세계이며 삶의 세계인 이승[此生]과 이상세계이며 죽음의 세계인 저승[彼生]이 아닌 또 하나의 세계, 삼승[三生], 아기의 이승과 저승, 성인 남자도 여자도 아닌 아이라는 미성년인 중성의 세계, 아기가 성인이 되기 전에 삼승할망이 보호 아래 놓인 제3의 세계가 '삼승'이며, 삼생(三生)이며, 삼승[三繩]이라는 것이다.

'삼승'은 아기의 이승 불도땅과 아기의 저승 동해용궁 '구삼승' 이야기 이다. 삼승은 아이들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아기가 부모의 고운 얼굴을 받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불도땅에는 가끔 외국에서 병(病)-마마(天然痘)-을 가지고 습격해 들어오는 마마신 '호구별성'이 와 아기의 고운 얼굴을 공격, 뒤옹박 얼굴을 만들기도 한다. 이 글은 삼승할망의 적대자 동해용궁 따님과 서신국 마누라의 콤플렉스를 찾아 의미를 밝혀보는 글이다.



아이 낳기를 비는 수룩춤

본풀이에 나타나는 제주 사람만이 지닌 심리적 영적인 기재들, 본풀이에 나타나는 신들의 콤플렉스에 관한 관찰이었다. 그것은 신화와 제주사회, 신화에 나타난 제주정신이라는 제주인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었다. 따라서 삼승할망 본풀이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산육신(産育神)이 능력을 얻어 생불할망, 불도할망이라 부르는 ‘삼승할망’, 하늘나라 삼천천제석궁 ‘명진국 따님아기’에게 <꽃가꾸기 싸움>에서 패배하여 아기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불행한 여신, ‘구천낭구불법할망’ ‘구삼승할망’ ‘저승할망’이라 부르는 ‘동해용왕 따님아기’와 마마신 ‘서신국대별상’이야기를 중심으로 고 진부옥 심방 본 <삼승할망 본풀이>¹⁾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신화 속에서 신화마다 발견되는 콤플렉스를 체계화하는 것도 난문제다. 삼승할망 콤플렉스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2. 삼승할망 콤플렉스 1-동해용궁 따님 이야기



(1) 불행한 여신, 구할망 동해용궁 따님아기 -구삼신님의 악심꽃 꺾음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새 생명[新生兒] 출생의 의미는 앞에서 ‘탯줄의 코드’를 따라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해주는 여신 ‘삼승할망’이 될 수 없었던 불행한 여신(女神), ‘구할망’이라 부르는 ‘동해용궁 따님아기’의 할망콤플렉스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되짚어 보려한다. 그 불행한 여신 ‘동해용궁 따님아기’란 이름 앞에는 죽음의 숫자 9자가 붙어 ‘구할망’, ‘구삼승할망’, ‘구구할망’, ‘구천낭구불법할망’, ‘저승할망’이라 부른다. 결국 구할망은 삼승할망이 되지 못하고 “생명을 채 피우지 못해 죽은 아기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할망”이 되어버린 저승할망 ‘동

1) 문무병, 「진부옥 본 삼승할망 본풀이 외」 『제주도 무속신화』,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75-196쪽.

해용궁 따님아기'이다.

동해용왕 따님아기는 <꽃가꾸기 경쟁(싸움)>에서 명진국 따님 아기에게 왜 패배했나? <삼승할망 본풀이>의 핵심 테마인 '꽃가꾸기 시험'은 두 미녀 신을 놓고 누가 더 아름다운가를 고르는 시험이 아니었다. 미인 콘테스트가 아니라, 천하일색이라는 두 미인을 놓고, 어떤 신이 더 인간적인가를 물으며, "누가 더 새 생명을 잘 길러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었다.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늘옥황의 상제께서는 "서천서역국 개모살밭에 꽃씨를 심어 꽃을 번성을 시키는 자를 '아이를 받는 생불왕' 인간불도 삼승할망으로 삼을 것"이라는 영에 따라 이루어진 삼승할망을 뽑는 시험이었다. 겉으로 드러난 싸움은 두 미녀의 출신과 능력을 판단하는 싸움이지만 그 싸움의 이면에는 감추어진 상징체계, 문화계통, 완전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선신(善神)인가, 생명을 지켜내기엔 부족함이 많은 악신(惡神)으로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서 폭넓게 관찰해 보아야 한다. 아름다운 여신의 얼굴에는 오색(五色)의 감정과 신바람이 있다. 그리고 <삼승할망 본풀이>라는 신화가 지닌 이야기의 가치, 신화의 스토리텔링까지도 생각하고 재정리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면 그것은 아름다운 두 미녀신이 가지고 있는 온기, 따뜻함에 대한 관심이며, 인간적인 모자람에서 신적인 완성으로 가는 콤플렉스의 관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동해용궁 따님아기'는 물의 신, 바다의 신(海神)이다. 그리고 삼승할망이 된 하늘옥황 '명진국 따님아기'는 천신(天神)이며 불의 신이다. 생불왕 인간불도 삼승할망이 될 수 없었던 "동해용궁 할망은 바다의 신이기 때문에 불의 '따뜻한 온기'를 가질 수 없고, 물의 '차디찬 냉기'를 가지고 있으니, 아이(생명)를 키울 수 없었지. 그것이 바로 용궁할망이 지닌 콤플렉스야." 하며, 할망이 지닌 콤플렉스를 발견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다.

삼승할망 본풀이를 근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맞이굿, 큰굿 <불도맞이>에 등장하는 삼승할망(불도할망) 하늘옥황 명진국 따님아기는 큰심방이 송낙을 쓰고 붉은 관복 차림의 정장을 하고 손에는 동백꽃(번성꽃)을 들고 은주랑철죽대(지팡이)를 들고 제장에 등장한다. 반대로 구할망(저승할망) 동해용궁 따님아기는 소무가 초라한 차림으로 분하여 갈대꽃(악심꽃)을 손에 잡고 달달 떨며 등장한다. 불도맞이 굿에서 두 아름다운 신은 이승(불도땅)과 저승(구삼승), 선신과 악신 등으로 뚜렷이 전형화 되어 두 신의 세계를 대립 구분해 준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불도맞이에 나타난 두 신격의 전형화>

신의 나라	명진국(하늘)	동해용궁(바다)
신의 역할	삼승할망	구삼승할망
신의 영역	불도땅	구삼승
신의 이름	명진국 따님아기	동해용궁 따님아기
신의 세계	이승	저승
신의 복장	새 옷을 입은 화려한 복장	헌 옷을 입은 초라한 복장
상징하는 꽃	번성꽃(동백꽃)	악심꽃(갈대꽃)
신격의 태도	善神 天神	惡神 海神
신의 위치(방위)	서쪽	동쪽

위 도표를 보면 삼승할망본풀이에서 두 미녀신의 선악미추와 성격방위 신통까지 애매하게 표현돼 하늘옥황 '명(命)을 길게 이어주는 나라', 명진국의 따님은 <완벽한-선(善)신-불도땅-서쪽>에 있어 생명 차지의 신, 생불왕이 되었고, 동해용왕의 딸은 '어머니의 태에서 아이를 받는 법을 듣지 않은 채' 세상에 와서 <미진한-악(惡)신-구삼승-동쪽>에 있어, 새 생명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저승으로 데려가는 불행한 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었다.

그러면 하늘나라 '명진국 따님아기'는 누구인가?

“아기를 낳게 해주고, 아기를 잘 키워주는 삼승할망 ‘명진국 따님아기’의 아버지는 하늘, 어머니는 땅이다. 삼승할망 ‘명진국 따님’은 ‘삼날[三日]’ ‘생명의 날’ ‘세 번째 날’, 천간(天干)도 세 번째, 지지(地支)도 세 번째인 제3의 날, 병인년(丙寅年) 병인월(丙寅月) 병인일(丙寅日) 병인시(丙寅時)에 세상에 태어났다. 삼승할망의 수(數)는 3과 7, 삼승(三繩)과 칠성(七星), 생명과 장수의 수이며, 3과 7, 3×7=21 모두 삼승할망의 숫자다. 그래서인지 삼승할망(=3)은 일곱 살(=7)이 되니, 벌써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깨우쳐 알았다 한다.

할망은 인간의 회임은 아버지 몸에 흰 피 석 달 열흘 백일, 어머니 몸에서 검은 피 석 달 열흘 백일에 이어 아홉 달, 열 달 기망(既望) 준삭(準朔) 다 채워야 아이를 회임하고 낳는 법을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이미 다 배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는 천지는 개벽(開闢)이 되었지만, 사람은 많이 살지 않을 때라 ‘명진국 따님’도 아직은 생불[아기]을 주는 삼승할망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공인된 삼승할망이 없었을 때였다. 할망보다 먼저 ‘동해용궁 따님아기’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2) 삼승할망본풀이(진부옥 본)



할망본풀이를 구송하는 강순연 심방

[9월 9일 구할망 탄생]

그때,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甲子時)에
 동해용궁 황정승이 결혼을 하여 삼십 서른 살이 되고,
 사십이 다 되어도 아기가 없어
 하늘 옥황(玉皇)에 불공을 드렸더니,
 옥황상제께서 영을 내리시길,
 아기가 없으면, 절에 가서 수륙불공을 드리면,
 아기를 회임할 수 있겠다 하였다.
 황정승이 ‘동계남상좌절[東觀音上座寺]’에 가 수륙불공 드렸더니
 황정승 부인 포태(胞胎)가 돼 친구월 초아흐렛날[九月九日]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동해용궁 따님아기’다.

[동해용궁 따님은 행실이 나빴다.]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행실이 나빴다.

한 살에 어머니 젓꼭지를 물어뜯고,

두 살 되니 아버지 삼각수 수염도 거스르고,

세 살 때는 어머니께 돌을 던졌고,

다섯 살 되니 명석에 넣어놓은 날레도 흠어버렸다.

똥도 역부러 싸버리고, 오줌도 싸버리고,

여섯 살이 되니 밭에 파종 그르치고, 꽃잎도 따 버리고,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하며, 일곱 살이 되니

동네에, 일가에, 형제간에 불목을 시키니,

황정승은 옥황상제께 딸을 위해 등장을 드렸다.

옥황상제는 “그런 아기는 무쇠석함에 자물쇠 채워

귀양정배를 보내버리라”는 영이 내렸다.

무쇠석함을 탁 채워 거기 들여앉혀 귀양을 보내려니,

동해용궁 따님애기 하는 말이,

아버님아, 어머님아, 나도 한 돌을 지키게 해야지

자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

어머 아방은 딸의 말대답에 질리니까,

너는 무쇠석함을 열 때가 안 됐으니,

“임부노조 임박사 개탁”을 새겨서 동해바다에 띄울 테니,

그때가 되면 인간 세상에 나와서,

인간불도 생불[아기]이나 쥐 보아라 하였다.

어떻게 생불[아기]를 줍니까 하니,

아방 몸에는 흰 피 석달 열흘 백일하고,

어머 몸에는 붉은 피 석달 열흘 백일로 유태를 쥐

석 달만 넘어가게 되면,

옷에선 땀내도 나고, 먹던 밥에 냄새 짓고,

먹지 못해 가면 얼굴에 기미가 낄 것이고,

쌀밥에 뜯물내, 보리밥엔 풀내, 조밥엔 세양내,

물엔 펄내, 장국엔 장칼내, 옷엔 땀내가 난다는 말 들었지만,

어머니한테 아이를 행복해산 하는 법을 듣지 못한 채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때가 돌아오니,

임부노조 임박사는 동해용궁 황정승처럼 아기가 없으니,

석가산[釋迦山] 아래 불당을 설연하여 수륙불공을 드리다가,

너무 피곤하여 잠간 바람을 쐬러 바다에 가 보니,

‘치녀물가’ 산호수[珊瑚樹] 상가지에

난데없는 무쇠석함이 걸려 있지 않은가.

거기에는 “임박사가 열어보시오”라 씌여 있어

임박사가 열어보니, 귀신도 같고 생인도 같은

고운 아기씨가 앉아 있었다.

“귀신입니까 생인입니까.” “귀신이 아닙니다.”

“성친땅[姓親]은 어디고 외친땅[外親]은 어디니까.

동해용궁 황정승이 저의 아버지인데

임부노조를 만나는 날이 오면,

인간불도로 들어서란 임무를 받고 왔다.” 하니,

자기도 아기 없어 수륙불공을 드리고 있는데,

인간 불도가 찾아 왔다니 기뻐서
 동해용궁 따님을 모시고 아양안동 금백산을 올라가
 누룩으로 만리토성을 두르고,
 바깥에도 만리성을 둘러놓고,
 이제 한층 두층 팔층 집을 지어
 상다락을 궁전같이 차려
 할망이 앉으면 하루 백 명도 포태는 주었으나,
 열 달은 채우지 않고, 뗏달 돼 가면 내워버리고,
 일곱 달 여덟 달 된 아긴, 여덟 달 넘어 나면 살고,
 여덟 달까지 채우지 못해서 내리워버리고 하니,
 어멍 살면 아기 죽고, 아기 살면 어멍 죽고 하여
 하나도 성공이 되지 않으면서도 동해용궁 할망은
 임박사 부인에게 유태를 주고, 포태는 주었으나,
 해산을 못시켜 인물 번성이 안 되니,
 이거 참 사람을 살리려다 다 죽이게 되어가니,
 임박사는 옥황상제께 등장을 드렸다.

[하늘나라 명진국 따님아기]

옥황상제는 인간불도 자격을 갖춘 자가 있으니
 하늘에서 내려드리겠다 하니, 그러면 내려주라 하니,
 그땐 하늘옥황에서 만조대신 조회를 열었다.
 조회가 열리고, 옥황상제 명진대왕이 이르는 말이,
 인간불도로 들여세울 만한 자는 명진국 따님아기다.
 그 할망으로 들여세워야 인간이 번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 번성을 시킬 자가 없구나 하였다.
 금부도사를 보내 명진국 따님아길 불러오라 하니,
 저 올레로 보니 열다섯 십 오세 된 아기씨가
 올레로 와서 딱 엎드려 있었다.
 엎드려 있는 명진국 따님아기에게 만조대신들은 앉아 있다가,
 “얼굴을 들라”하여 얼굴을 든 모습을 보니,
 정말 얼굴은 천하일색 미인이었다.
 명진국 따님아기가 얼굴을 이만큼 들고 하는 말이,
 “저처럼 배우지 못한 아이를 어찌서 오라 하셨습니다까?” 하니,
 그때는 만조대신들이 앉아서,
 “말하는 것만 봐도 인간불도로 내려서면 자손은 물론
 이제 인간을 번성시킬로구나. 가까이 들어오라”하니,
 가까이 딱 들어가니,
 “너는 인간불도로 들어서서 자손을 번성시켜라”하니,
 “저를 인간불도 할망으로 들여세우려면,
 제가 요구하는 대로 행장을 차려주어야 합니다.”하였다.
 “너의 요구를 말해 보아라”하니,
 “처음엔 은썰, 은붓, 은가위, 은장도를 내어 줘서.
 왼손에 환생꽃 내어 줘서, 오른 손에 번성꽃을 내어 줘서.”
 “그러면 나의 행장을 차려줍서”
 “뭣을 차려주느냐?”
 “물명주 단속옥, 코제비 백능버선, 가막창신, 구슬든 겹저고리,
 열두폭 금삼아치 홀단치마 내어 줘서.”
 “물명주 단속옥, 호양미 감투, 만삼 족도리, 네눈달린 꽃땡기,”

그리 다 내어주니, 아래로 소곡소곡 내려갔다.
옥황에서 인간세계로 내려서려면, 노각성자부다리,
할마님 생불다리로 일곱자 걸레베, 한 석자 바라끈,
할마님 사용할 것은 모두 가지니,
할마님이 날 때에는 병인월 병인일 병인시,
삼진 정월 초사흘 날 낳지만,
할마님 인간세상에 행장을 차리고 내려올 땐
4월 초파일이었다. 절마다 등불 구경하며 내려오자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복석자리 내어주다.]

어찌하여 울음소리가 나는가.
한 발자국을 드러놓고 바라보니 임 박사 부인이었다.
아무래도 스무 달은 배었던 모양이었다.
벤 아기가 인사하고, 이렇게 소리할 줄 알고, 그래가니
막 그냥 생죽음을 하고 있었다.
아기는 배안에서 바들랑 바들랑 해가고
어머은 각각이 찢어지지도 않고 받겨지지도 않고,
나오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자니,
할마님이 가서 보니, 배 안에서 아기가 온 유세를 다 해도
어머은 죽을 상이 돼 있었다. 애라 안 되겠다 해서
그냥 확 벗어젓혀서 왼손을 탁 내놓고 아기 어머 상 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삭삭 쓸어가니까
벤 아기가 벌써 나오려고 머리를 도져 가는데,
이리로 탁 피가 쏟아져 이슬이 내리고
아기 어머은 죽억 살악 하고 있었다.
할마님은, 우린 이런 자리에 못 앉습니다.
“내가 앓을 자릴 차려줍서.” “어떤 자릴 택합니까?”
“복석자리를 마련해 주십서.” 하니,
늘 위에 가서 짚을 북북 파다 ‘복석자리’를 차려주니
할마님이 벗어제쳐 두고 짧은 끈은 늦추고
늦춘 끈은 조이고 막 잦은 맥을 주어서
아기는 막 나오려고 해가니까,
할마니도 땀이 나고 아기 어머도 방울땀이 나더니,
‘뽕’ 하고 그냥 안에서 아기방석(胎)은 오래돼 막 썩었지만,
아기는 종이끝을 벗지 않은 채 태어났구나.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두렁박이 나왔구나.
그래서 임박사네 집에서는
아기 몸 목욕을 시키려니
아기 어머이 태를 못 내어 죽을 상이 돼 가니,
건지머리를 확 풀어서
아기 어머 입에다 물려서 딱 당기니,
아기는 각 하니, 아기태가 나왔다.
그때 낸 법으로, 이제도 부쳐도 찢어서 먹이고
병원 안 가서 아기가 나오지 않으면,
남의 머리라도 해다가 입에 물리면,
차라하게 태갈라 나오는 법이 생겼다.

[착한 할망과 독한 할망]

할마님이 태갈라 눕히고, 치셋베 받고, 하는 말이,
 이제 사흘 동안은 유모를 불러서 아무래도 이 아기
 사흘은 돼야 젖줄을 돌리고,
 아기 어멍 목욕을 시켜야 아기 젖을 먹일 거니,
 유모를 정하고, 아기 어멍 솟 삶아 목욕 시키고
 아기 젖줄을 돌리고, 젖꼭지 내어 아기 안고 젖먹일 때는
 오른쪽엔 국사발, 오른쪽엔 밥사발 하여
 처음에 안을 때는 이리로 머리를 해서 안게 되니,
 사람은 대개는 귀통이가 틀어져
 열이면 열 아기는 한 귀통이가 틀어져 나왔구나.
 아기 나 사흘째 되는 날은 ‘용궁 할망’이 날려들어,
 어떤 년이 내가 포태를 준 내 자손을 해산 시켰느냐.
 용궁할망은 굶은 할망, 욕심 많고 독한 할망이고,
 명진국 할마님은 마음이 순하니까
 할마님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인간에 불도(佛道)(삼승할망)가 없다 해서
 만조대신이 조회를 열어 나를 인간불도(=삼승할망)으로 내세웠는데
 왜 이렇게 모욕을 주십니까?
 나는 남의 발등을 치려는 마음을 안 먹었는데
 어떤 연유로 나를 여기 보냈느냐 하니,
 철망도사(鐵網道使)를 보내 할망 둘을 체포해 가옵디다.

[꽃가꾸기 싸움]

동해용궁 할망도 명진국 할망도 잘도 고왔다.
 만조대신도 옥황상제도
 누가 더 낫다 지적할 수가 없어서 맘이 아팠다.
 그래서 하는 수 없어, 꽃씨 한 방울씩 내어주고,
 은수반(銀水盤), 큰 꽃다라를 내어주고,
 여기다 꽃을 심어서 꽃이 번성하는 자로
 저승 이승 구분을 한다는 영을 내렸다.
 그리하여 꽃씨를 내려주고, 꽃씨를 드리니까,
 명진국 할마님 꽃은 막 번성이 되어
 사만 오천 육백 가지로 번성이 되어,
 동청목(東靑木) 서백금(西白金) 남적화(南赤火)
 북흑수(北黑水)라 하여, 북으론 검은 꽃이 피고
 한가운데 오색가지 꽃이 피었다.
 명진국 할망 심은 꽃은 그렇게 번성꽃이 되었지만,



할망다리 추김

[동해용궁 따님 저승할망 되다.]
동해용궁 할망 꽃은 가지는 4만 4천 4백 가지에
뿌리는 뻗어도 외가지 외송이로
아무리 꽃을 심어봐도 검뉴울꽃이 되니,
그땐 할 수 없어 옥황상제와 만조대신이 모여앉아
“너 동해용궁 따님 아기는 꽃을 번성시키지 못했으니,
할 수가 없다. 너는 저승법을 차지하고,
명진국 따님 아기는 인간 불도할망으로 들어서라.” 하였다.
동의용궁 할망은 너는 저승에 가
저승을 다스리라는 말에 화가 났다.
그래서 동의용궁 할망은 달려들어
명진국 할망의 꽃 상가지를 꺾어 가져가 버렸다.
용궁할망이 오도둑 꽃을 꺾어가자
어질고 순한 명진국 할망도 화가 났다.
“어찌려고 내 꽃 상가지를 꺾어 가느냐?”
나는 저승 가면 불을 데가 없으니,
죽으나 사나 저승가도 할망 뒤에만 따라다니겠다.
할망이 아무리 힘을 써서
어떤 집에 가서 아들을 낳아주던 딸을 낳아주던
나는 악착같이 따라다니며, 할망이 포대를 주며는
난 석 달 전에 몰로도 아프게 하고, 귀로도 앓게 하고,
열 달 기망(既望) 차기도 전에 유산도 시켜버리고,
난 아기 어머 젖내에도 달려들어
아기 어머에게 본병 괴병(怪病) 불러주고,
아기엔 급경(急驚) 만경(慢驚) 경풍(驚風) 경세(驚勢) 불러주고,
그냥 길 때까지, 역을 때까지, 열다섯 십 오세 전에
할망 아기에만 들어 반 시름을 하겠다 해서
두 할망이 막 싸우니 할 수 없어
동의용궁 할망은 저승으로 가고,
명진국은 할망은 이승 생불할망이 되었다.
그러니 명진국 삼승할망 본(本)만 풀어서

할마님이 풀어지면, 아기를 잘 키워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 조박거리고 경끼(驚氣)하고 하는 것은
동해용궁 할망, 바로 이 구삼승할망(=저승할망)이 들어서 하는 거다.
그러니 끝에는 할망상을 놓고 여기 빌어도 옆에 할마님 날은
그 할망, 용궁할망(구할망)이 나타나지 못한다.



저승할망의 초라한 차림과 구할망차롱 1982년 하도리

3. 삼승할망 콤플렉스 2-서신국 대별상 이야기



진부옥 심방의 1986년 김윤수 심방집 신굿

[질병의 대란(大亂)과 호명정구(마마)]

할망을 이길 수 없었던 불행한 여신, 동해용궁 따님아기 구할망이 생불할망이 될 수 없었던 이유, 할망 콤플렉스는 <꽃가꾸기 싸움>에서의 패배였으며, 그 결과는 승자는 이승 생불왕 삼승할망이 되었고, 패자는 저승 구불범 구할망이 되었다. 아기는 어머니의 태 안에서 36° 5'의 어머니의 온기를 받고 자란다. 명진국은 하늘 태양이 있는 불의 나라이므로 명진국 따님아기가 따뜻한 생명을 지키는 생불할망이 된 이치는 옳다. 동해용궁은 물의 나라이고 물은 아이를 씻을 수는 있지만, 키울 수는 없다. 동해용궁 따님이 생명을 키우는 꽃가꾸기 싸움에서 패배한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렇게 용궁할망은 저승할망이 되어 불행했지만, 할망의 성장과정을 보면, 완벽하지 않아 인간적이다. 버릇없고 멋대로인 아이다움으로 보면 신이 아닌 인간이다. 천성적인 많은 나쁜 것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동해용궁 할망이 겪는 생명과 죽음의 갈등은 달리, 마마신 서신국 마누라의 갈등과 콤플렉스, 생명과 질병, 남과 여의 싸움은 또 다른 콤플렉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할망이 점지한 본 얼굴, 아버지 어머니를 닮은 얼굴은 왜, 마마신의 횡포에 의해 찌그러지고 뒤틀린 뒤 옹박 얼굴로 변형돼야 하는가. 죽음에 이르는 병, 생명의 원리를 어긋나게 하는 질병의 대란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 글에서 그려보는 마마 콤플렉스, 서신국 대별상 이야기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없어진 곳 <마누라 배송>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미래의 전염병에 대한 경고를 담고 싶다.

서신국 대별상의 할망 콤플렉스, 마마신의 콤플렉스는 생불을 주고 환생을 주는 할마님이 만들어낸 아기의 고운 얼굴[=본(本)], “아방 몸에 흰 피 석 달 열흘, 어멍 몸에 검은 피 석 달 열흘, 아홉 달 열 달 준삭(準朔) 기망(既望) 채워 태어난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본바탕을 닮은 본(本)을 받아 태어난 아이의 ‘고운 얼굴’을 그려내는 생불할망의 손길을 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마는 없어졌다. 그러나 마마의 공포처럼 질병의 대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름 모를 전염병은 새로운 변형의 유전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것은 마마신이 주는 ‘호명정구’이며 뒤틀린 마음과 뒤옹박이 된 찌그러진 얼굴이다. 마마는 외국에서 들어온다. 마마는 태를 갈라 나온 아기의 얼굴을 공격하여 뒤옹박 얼굴을 만든다. 병이란 그런 것이다. 병을 이기고 어머니를 닮은 아기의 얼굴을 유전하는 ‘태(胎) 할망’, 삼승할망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

[할마님의 자존심을 건 싸움]

마마신 이야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불알 달린 사내’라 까불던 마마신이 할마님의 위용 앞에 무릎을 꿇은 이야기다. 어느 날 건방지다고 소문난 마마신 서신국대별상이 할마님이 고운 얼굴을 내려준 아기들에게 ‘호명정구(마마)’를 주려고 삼만관속(三萬官屬)과 육방하인(六房下人)을 거느리고 세상에 행차하고 있었다. 할마님은 대별상을 만나자 공손하게 부탁했다. “대별상님, 제 자손들에게 고운 얼굴로 호명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대별왕은 거만하게 “여성이란 족속은 꿈에만 나타나도 사물(邪物)인데, 대장부 행차길을 어찌 어지럽히는가. 우리와는 떨어져 물아랫길로 지나가거라.” 하였다. 할마님은 물아래로 지나가란 말에 화가나, “대별상아. 나에게도 한번은 굴복하고 사정할 때가 있을 거다.” 하였다. 그 뒤에, 할마님은 먼저 서신국의 부인에게 포태(胞胎)를 주었지만, 해복해산(解腹解產)을 시켜주지 않았다. 서신국의 부인은 해복을 못해서 죽을 사경이 되어갔다. 부인은 남편 대별상을 불러, “난 이제 다 죽게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생불할마님이나 청해 달라.” 하였다.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건방진 대별상이었지만 부인을 살리기 위해 명진국에 들어가 할마님 앞에 부인을 살려 달라 애타게 빌었지만, 할마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나를 너의 집에 청하고 싶으면, 대공단고칼로 머리 삭발하고, 한침 질른 굴송낙 둘러쓰고, 두 귀 누른 굴장삼 둘러입고, 면보선 신은 체로 이 아래 와 엎드려 있으면 내가 가겠노라.” 하였다. 대별상님은 먼 올레 바깥에 가 노람지를 펴고 엎드려 이렛 동안을 밤 낮 주야, 모진 광풍이 불어도 그대로 엎드려, 눈보라가 몰아쳐 수염에 고드름이 서고 얼굴이 얼어붙어도,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놀드는(날뛰는) 시건방진 마마신 서신국대별상에게서 사과를 받은 할마님은 쾌ση하고 섭섭하지만 너희 부인 해복해산 시켜주겠다 하였다. “그만하면, 하늘 높고 땅 낮은 줄 알겠느냐? 뛰는 재주가 좋다 해도 나는 재주도 있다.” 더라고 충고해 주었다. 대별상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며 크게 사과하였다. 할마님은 “나를 너의 집에 청하려면, 물명주 강명주로 서천강에 연다리를 놓으면 가겠노라.” 하였다. 대별상은 물명주 강명주로 서천강연다리를 놓았고, 할마님은 서신국에 들어가 할마님이 은길 같은 손으로 사경을 헤매는 서신국부인의 허리를 삼세번 쓸어내려 궁애문[子宮]을 열어주어 아이를 낳게 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마마신 대별상이 죄목죄상을 징치하고, 아기(생불)를 안겨주고 ‘서천강연다리’를 건너가는 이야기이다.

아래 표는 생불을 주고 환생을 주는 할마님이 자손에게 준 고운 얼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마마신의 오만과 횡포에 의해 어떻게 뒤틀릴 수 있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마신 서신국마누라 콤플렉스의 형성>

신의 나라	명진국(본국)	서신국(외국)
신의 기능	생불 환생	호명정구(마마), 피부병
신의 태도	남녀평등	남존여비
신명	명진국 따님아기	서신국 대별상
관련된 곳	불도맞이	마누라 배송
중요한 신물	북덕자리와 치셋매	배송뒹개 차롱
신의 분노(有無)	하루 만명 유태 해산(무)	난산으로 사경에 헤맸(유)
신의 얼굴(本)	고운 얼굴(건강과 美)	뒤옹박 얼굴(병과 醜)
당신은 왜(충고)	당신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가?	여자는 꿈에만 나타나도 사물인데

[마누라 배송]

‘마누라 배송’은 마마에 걸리면 하는 곳이다. 곳의 마지막 날은 마마 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를 ‘배

송'이라 한다.

마마에 걸려 곱을 하게 되면, 호명정구, 마마를 불러주는 마마신, 서신국대별상, 흥진국마누라 신이 떠날 때, 차룽을 가마처럼 만들어 네 귀에 기를 달고 차룽 안에 제물을 차리고 종이를 덮는다. 이를 '배송뒹개 차룽'이라 한다.

'마누라 배송'은 삼승할망상을 놓고 배운 다음 마마신 상을 놓고 집안 문전 성주 조왕, 아기 아방, 아기 어멍 다 하직하고 "삼만관속 육방하인자 대별상 마누라님 떠날 시간 되었구나. 어서 가자. 호호-"하고 병풍을 싸 가지고 가서 차룽을 정결한 데 갖다 놓는다.

아기가 호명정구, 마마를 할 때, '마누라 배송굿'을 하지 않으면, 마마 군졸 잡귀들이 들어 아기에게 피부병도 불러준다고 한다. 그리고 호명정구, 마마를 할 때는 빨래 같은 거 삶아도 흥을 보고, 풀을 해도 흥이 된다. 이때는 집안에 목이 쉬어 말 못하는 환자가 생긴다고 한다.

[마누라 본풀이]

난산국²⁾ 본을 풀면 신나게 내리소서.
인간불도 할마님은
병인년(丙寅年) 병인월 병인일 병인시에 탄생하여
아방 몸에 흰 피 석 달 열흘 백일,
어멍 몸에 검은 피 석 달 열흘 백일,
아흠 달 열 달 준삭(準朔) 기망(既望) 채워
포태 환생시켜 주시던 영급 좋은 할마님.
하루에 만 명 아이에게 포태(胞胎)를 주고,
하루에 아이(생불) 만 명을 내워주는 할마님은
하늘 옥황 명진국 따님아기입니다.
할마님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때는,
삼진 정월 초사흘 날(1월 3일).
왼손에 환생꽃, 오른손에 번성꽃 들고
만민자손에 생불(아이)을 주시려고
하루 천 명 생불을 주고, 하루 만 명 환생을 주실 때,

[서천강연다리 대목]

할마님이 서천강 다리에 나가 보니
인간세계가 눈앞에 열려오는구나.
어떤 비주리초막³⁾에서 아기울음소리가 탕천하여,
무슨 곡절이 있는 듯해 집안을 둘러보니,
아기 어멍 열 달 기망(既望)을 다 채워도 해산을 못해
죽억살악, 고생고생 하고 있는 것 같아,
할마님은 은길 같은 손으로, 금길 같이 은길 같이
아기 어멍 상가마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삼세번 쓸어가니,
배안에 아기(胎兒) 머리가 돌아난 듯하는구나.
방안이 청결하지 못한 것 같아 할마님이 말하시길,

[북덕자리 깔아주다]

저희는 이런 누추한 자리에는 다니질 못합니다.
하늘 가득한 북덕자리⁴⁾를 차려 달라 하였다.

2). 본초, 본디 태어난 곳과 그 내력.

3). 아주 작은 초가

주인이 벼짚을 마련하여 북덕자리 차려주니,
 그대서야 영급 좋은 할마님은
 아기 어멍 빼끝마다, 살 끝마다 자근자근 궁애문⁵⁾ 열어,
 잣은 맥(脈)을 주어 생불 아기 탄생을 시켜 주니,
 아기는 눈이 붙어 태어나
 이도 혀도 설설이 돌아서
 천금(千金)같은 동자(童子) 아기 탄생(誕生)하니,
 대나무 갈라 왕대구덕을 마련하고,
 눅혀서 재우는 애기구덕 범 마련하고,
 오른쪽에 국사발, 왼쪽에는 밥사발 식사법 마련하고,
 할마님은 우리 인간에
 좋은 포태(胞胎)를 주려고 내려서다 보니,
 마마신 서신국대별상을 만나게 되었구나.
 할마님 자손들 내우는 건
 밭에서 농사짓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까?
 농사(農事)도 하면 손을 봐서
 초벌 이벌 세벌 김을 매어야 곡식이 되는 법이니
 할마님은 막 달리는 말안장에
 금지옥엽 같은 아기들 포태를 내어주려고

[할마님의 복장]

물명주(水禾紬) 단속옷, 코제비 백릉(白綾)버선,
 검은 창신, 구슬든 겹저고리, 열두 폭(十二幅) 금삼(錦衫)아치,
 홀단(單短)치마 차려입고 한길을 걸어가시는데,

[서신국 대별상의 행차]

마마신 서신국대별상은 할마님이 내운 아기에게
 좋은 호명(마마)을 불러주려,
 앞에는 영기(令旗), 뒤엔 몸기(命旗),
 별런독교(別輦獨驕) 쌍가마(雙駕馬),
 삼만관속(三萬官屬) 육방하인(六房下人) 거느리고
 내려오고 있었구나.
 할마님이 공손하게 말하시길,
 “대별상님아, 저가 생불을 주고 환생을 준 자손에게
 고운 얼굴로 호명하여 주십시오.” 하니,
 대별왕이 그때야 봉의 눈[鳳眼]을 부릅뜨고,
 “이게 웬일이냐? 여성이란 족속은 꿈에만 나타나도 사물(邪物)인데,
 남자 대장부 행차길에 망령된 여자가 웬일이야? 께뽀하구나.”
 우리와는 떨어져 물아래로 지나가는 게 어떠하냐?” 하니,
 할마님은 물 아래로 지나가란 마을 듣고 화가나 말하기를
 “대별상의 하는 짓이 께뽀하구나.
 나에게도 한번은 굴복하고 사정할 때가 있을 거다.” 하여
 서신국 부인에게 포태(胞胎)를 주었지만,
 열 달 채워도 해복해산(解腹解産) 시켜주지 않았구나.
 서신국 부인님이 말하기를,

4). 보리짚을 깔아 놓은 자리.
 5). 여자의 음문(陰門), 자궁의 문.

“야, 이걸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대별상님, 당신은 할머니께 섬섬케 한 일 없습니까?”
대별상님이 사실은 이만 저만 하였다고 하니,
할마님이 우리 아이[生佛] 포대를 준 게 틀림없으니,
어서 가서 서신국대별상님은
아양안동 금백상 안상 밧상 독석(獨席)으로 차려
팔십 영청(營廳) 안에 할머니가 앉아 계실 테니,
거기 가서 원수륙(願水陸)⁶⁾을 드려 보십시오.
할마님이 생불꽃(生佛花)를 가져다가
대별상 부인 서신국마누라에게 유태(有胎)를 불러주니
한 두 달이 지나고 열 달이 지나고 열 두 달이 넘어도
해복을 못해서 서신국마누라는 죽을 사경이 되어 가니,
대별상을 불러 놓고 말하기를,
“난 이제 다 죽게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생불할마님이나
청하여 주십시오.”
“남자 대장부가 어찌 여자를 청해 가겠는가,
하지만 마누라가 다 죽게 되었으니 한번 가보자.” 하여,
백망진, 백도포에 마부를 거느리고 말을 타
명진국에 들어가 할머니 앞에 왔으나,
할마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서신국대별상은 삭발하고 할머니께 죄를 빌다.]
대별상은 노뎛돌 아래 양 무릎을 꿇고 엎드리니
그때야 할머니가 말하기를,
“나를 너의 집에 청하고 싶으면, 바삐 돌아가
대공단고칼로 머리 삭발하고, 한 침 질른 굴송낙 둘러쓰고,
두 귀 누른 굴장삼 둘러입고, 면보선 신은 체로
이 아래 와 엎드려 사과하면 내가 가겠노라.” 하였다.
대별상님은 친양도폭(道袍) 입고,
먼 올레 바깥에 가 노람지 퍼 엎드린 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렛 동안을 밤 낮 주야
모진 광풍이 불어도 그대로 엎드려 있고,
눈보라가 몰아쳐 수염에 고드름이 서고 얼굴이 얼어붙어도
하루 내내 그대로 엎드려 있고 하니,
할마님은 한편으론 껄썩했지만,
너무 부인 정녀가 불쌍하다 하여,
껄썩은 해서 섬섬하기는 하되 너 하는 일을 봐서
너희 부인 해복해산 시켜주마.
“그만하면 하늘 높고 땅 낮은 줄 알겠느냐?
뛰는 재주가 좋다 해도 나는 재주가 있다 하여라.”
“예,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나를 너의 집에 청하려면, 물명주 강명주로
서천강에 연다리를 놓으면 가겠노라.”
대별상이 물명주 강명주로 서천강연다리를 놓으니
할마님이 서신국에 들어가보니,
서신국 부인님은 죽을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6).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비는 제.

할마님이 은길 같은 손으로 허리를 삼세번 쓸어내려
 궁애문을 열고 환생을 시켜주었던
 물명주 강명주 서천강 연다리가 됩니다. 그러니
 대별상은 서벽좌(西壁坐)로 좌정하여 상을 받거들랑
 할마님이랑 동벽좌(東壁坐)로 좌정하여 상 받는 법 마련하고
 할마님이 받은 자손들은 다 호명정구를 때가 되면,
 서신국 대별상은 좋은 호명정구를 시켜주고,
 좋은 북 말(斗)로 줍서, 심(石)으로 줍서.
 아기 본 얼굴 본 모습(相)이 없어 고운 자국이 풀어지었구나.
 할마님은 많은 자손(子孫)들에 포태(胞胎)만 잘 시키다 보니,
 내 자손은 이렇게 되었구나.
 이젠 시기를 보아 대별상님께 가서
 내 아기 본 얼굴 본 바탕을 만들어 달라 하니,
 그때엔 서신국대별상이 말하기를,
 높은 동산이랑 낮게 하고, 낮은 동산이랑 높게 하여
 본 얼굴 본 호명을 어서 가서 만들어 두고 오라 하니
 작은 마마신 홍진국이 와서 열이틀⁷⁾만에
 ‘마누라 배송’을 받으려 한 게 작은 마누라가 되었구나.

[서신국 대별상이 주는 병(魔症)]
 그리하여 천황가면 열두 매증(十二魔症)
 지황가면 열한 매(十一魔), 인황 아홉 매(九魔),
 동해 청매(靑魔), 서해 백매(白魔), 남해 적매(赤魔),
 북해 흑매(黑魔), 천지 중앙 황신매(黃魔) 제초를 시켜줍서.
 정월 상원매(上元魔), 이월 영등매, 삼월 삼진매,
 사월 파일매, 오월 단오매(端午魔) 제초를 시켜줍서.
 야, 유월은 유두매, 칠월은 칠석매(七夕魔), 팔월 추석매(秋夕魔),
 구월 당주매(堂主魔), 시월 단풍매(丹楓魔), 오동짓달 동지매(冬至魔),
 육섯달은 대한매, 늦인매 보뜨매 차아래 깔린매,
 이불 위에 덮은매, 베개 아래 묻어준 매를 다 제초시켜줍서
 천정에 붙은매 축보름에 붙은매
 한 이레 늦은 매, 한 사흘 보뜨 매
 든징 난징 경풍 경세 불러주어 얻어먹자 얻어쓰자 하는
 할마님 누이 동경국 할망이랑 다 물 아래로 소멸을 시켜가며,

[마무리]

동해용국 따님과 마마신 서신국 대별상이 지닌 삼승할망 콤플렉스는 아름답지만 ‘따뜻한 온기와 은
 결 같은 손’을 지니지 못한 불행한 여신과 오만과 편견으로 뒤틀려서 “ 맴이라도 곱던지 기십만 살안,
 하늘 높은 줄 몰르고 높드는 남신, 어느 누구도 생불할망이 될 수 없었던 확실한 결점을 확인하는 과
 정이었다. 선신(善神)과 악신(惡神), 남신과 여신이라는 의례적인 대비가 아니라 삼승할망의 세계에 들
 어설 수 없는 이유를 밝힘으로써 불도할망의 세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였다. 아름답지만 바닷

7). 열이틀은 마마가 발병하여 회복되는 기간으로, 사흘은 앓고, 사흘은 쫓아내고, 사흘은 불리고, 사흘은 들기 때
 문에 12일이 된다.

물처럼 찬, 버릇없는 아이할망, 몸의 조화를 보든 빼 늦추는 은질그튼 손이 어신 구할망의 무지와 함께 할머니가 짐지해 준 고운 얼굴을 망가뜨리는 마마신의 병에 대한 경계와 세상의 세속화된 권력, 남성적인 속성들, 전쟁, 싸움을 일으키는 야만성과 오만방자함, 하늘의 이치를 모르는 남성적인 힘의 무모함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할망은 얘기했다. “그만하면 하늘 높고 땅 낮은 줄 알겠느냐? 뛰는 재주가 좋다 해도 나는 재주가 있다 하여라.” 그때서야 서신국은 “예,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였다.

할마님은 대별상이 세속화된 권력의 위선을 벗고 머리를 깎고, 새로운 성자의 태도를 갖춰 정식으로 할마님께 사죄하기를 바랐으며, 대별상이 부인의 해복을 위해 진정으로 빌었을 때, 할머니는 서천강연다리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마마신 서신국 대별상이 주는 ‘호명정구’ ‘마누라(마마)’는 외국에서 들어온 전염병이다. 마마신이 호명하는 마마(天然痘)는 할마니가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일과는 달리 아이의 얼굴을 뒤옹박을 만들어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전염병의 범람을 경계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 글은 마마는 없어졌지만, 언제 또 다시 변종의 호구별성이 만연할지 모르는 세상을 경계하는 의미를 담고 싶었다.



서천꽃놀이(구삼성 념), 1982년 하도리 면수동에서 서재철 촬영